

싱가포르 現物市場의 役割

싱가포르는 로테르담, 휴스턴에 이어 세계 第3位の 石油現物市場이다. 싱가포르는 하루 약1백만배럴의 精製能力을 보유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자체내에서 생산하는 石油製品 중 12%만 국내소비하고, 나머지를 輸出하고 있다.

싱가포르經濟의 中樞役割은 植民地時代부터 貿易이였으며 현재는 石油가 貿易의 大宗을 이루고 있다. 貿易業者들은 精油業者들이 스스로 精製시설이 과잉이라고 하던 60年代末로부터 70年代初사이에 유럽市場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需要와 供給의 均衡이 깨질 때 機會를 포착한다. 73~74년에 原油價의 暴騰으로 石油의 需給不均衡이 惡化되면서 부터 유럽 現物市場去來가 한층 크게 부각되었다.

極東地域에서 石油의 現物去來가 시작된 動機는 중래의 原油供給을 와해시킨 79년의 이란革命이었다. 메이지들은 日本과 기타 第3導入國에 原油供給을 삭감하거나 단절해야만 했으며 이로 인해 供給不足現象이 일어났다. 79年下半期에는 최소한 6個貿易會社가 極東石油製品市場의 中心地인 싱가포르에 支社를 설치했다.

過去의 싱가포르 精油工場

이란革命前 아시아地域에는 投機的인 石油去來가 비교적 없었다. 싱가포르지역에서 이렇게 투기를 목적으로 활동하던 貿易業者도 거의 없었으며, 대부분의 거래는 주로 이지역의 대규모 精유공장간의 供給 均衡을 위한 것이었다. 60年代 싱가포르 精油工場들은 印度에서 필리핀까지 貿易面에서는 美國 西海岸까지 펼쳐지는 방대한 지역인 극동지역에 輸出用 精油工場으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需給均衡을 이루는 기능때문에 싱가포르는 輸出増大의 機會를 갖게 되었으나 위험도 뒤따랐다.

싱가포르는 石油市場으로서 늘 다른 국가들에 크게 의존해왔으며, 市場需要가 감퇴하거나 原油價格이 74年 石油위기때처럼 폭동할때에는 싱가포르精유공장은 곤경에 처하게 된다. 이 工場들은 특히 重質의 中東產 原油

〈油協·調査課〉

를 쓰도록 設計되어 있고 대부분의 原油供給을 中東에 의존하고 있다. 80年 이란-이라크 전쟁시까지 사우디·아라비아產 原油가 싱가포르 原油輸入量의 約58%, 이란產 原油가 約14%를 차지했고, 말레이시아를 비롯한 기타 產油國으로부터 나머지28%를 輸入했다.

싱가포르 石油産業의 보다 큰 弱點은 水素化分解裝置와 기타 改質裝置의 不足現象을 들 수 있다. (이 現象은 극동의 다른地域에 있는 精油工場에도 해당된다.) 예컨대 과거 重質燃料油需要가 적었던때에는 (重質燃料油가 싱가포르 石油製品生産中 큰比重을 차지함) 燃料油일부를 分解하지 않고 精油工場의 稼動率을 줄여야 했다. (이로 인해 輕質油製品의 現物去來를 촉진한 때도 물론 있었다) 水素化分解시설이 83~84年中 稼動될 예정이며 셀은 水素化分解工場을 建設中이며 모빌은 Visbreaker裝置를 建設中이다. 인도네시아도 신중히 검토한 후 두마이工場에 分解施設을 設置中에 있다.

싱가포르는 73年 石油위기로 극심한 타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싱가포르 주요시장의 一員인 日本에 타격을 준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越南戰의 終戰과 거의 때를 같이하여 석유위기가 몰아닥쳤기 때문이었다. 70年 越南은 싱가포르의 主要한 石油輸入國으로서 싱가포르 石油製品輸出量의 21%를 차지하였고, 日本은 約10%를 차지하는데 불과하였다. 73年末 상황은 바뀌어 日本이 主要輸入國으로 싱가포르 石油輸出量의 約26%를 차지하게 되었다. 월남이 市場으로서 日本보다 우위에 있었던 것은 전쟁중 石油製品을 多量輸入한 때문이며 日本과 이 지역의 다른나라는 自國의 精油工場이나 인도네시아 精油工場이 供給할 수 없는 油種中 最低需要量만을 싱가포르로부터 輸入하였다.

70년부터 73년까지 경제적 불을 타고 日本의 石油消費量은 대폭 늘어났으며 늘어나는 日本의 需要量은 싱가포르製品으로 충족되었다. 싱가포르의 石油製品輸出量중 日本은 揮發油의 約50%, 燃料油의 37%, 輕油와 항공유의 20%를 輸入하였다. 日本의 경기가 침체하자 싱가포르 석유산업도 휘청거렸다. 74年末 日本의 揮發油輸入量은 前年對比 98%나 감소하였으며 항공유는 약 60%가 줄어들었다. 나프타만이 需要가 신장되고 價格

도 좋은 편이었다. 75년에는 싱가포르석유에 대한 전망이 밝지 못했다. 따라서 싱가포르는 石油消費가 늘고 있는 東南아시아의 다른나라로 輸出함으로써 잃어버린 市場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이들 國家들은 자체 精油工場을 建設하려고 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지아는 싱가포르가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원유안정공급을 확보하고 있는 利点を 갖고 있었다.

81年初 싱가포르의 精製能力은 하루 1백만배럴을 약간 웃돌고있다. 가장 큰 정유공장은 셀로 하루 46만배럴을 처리할수 있으며 다음이 옛소 하루 24만배럴, 모빌 하루 17만5천배럴, 그리고 싱가포르 精油会社(칼텍스, BP)와 國營싱가포르石油会社의 合作会社)는 하루 17만배럴의 處理能力을 갖고있다.

原油供給의 붕괴

79年 이란革命과 이란-이라크 戰爭으로 발생된 中東地域의 격변으로 싱가포르 精油業者들은 原油確保가 어려워지자 일부業者들은 經濟性있는 工場稼動을 유지하기 위해 第3者の 위탁가공거래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石油製品의 國內需要증가를 충족시킬수 없는 극동지역의 國營석유회사들은 일정기간동안 싱가포르의 메이저들과 공동으로 가공·처리하여 왔다.

예를들면 인도네시아의 國營석유회사인 케르타미나는 79년부터 80년에 걸쳐 인도네시아가 必要로하는 溜分の 약65%를 위탁가공으로 求得(現物市場에서 구입분 포함)한 것으로 추정된다. 말레이지아의 國營석유회사인 페트로나스도 역시 싱가포르에서의 위탁가공에 크게 의존해왔는데 그 이유는 말레이지아의 정제능력이 原油生産과 國內需要를 충족시킬수 없기때문이었다. 페트로나스는 現在도 自体소유의 精油工場이 없지만, 하나가 建設中이고 또하나가 83~84년에 稼動할 예정이다.

위탁가공한 석유제품은 흔히 극동 現物市場에서 去來되는 物量供給源이 된다. 위탁가공한 당사자는 그들이 필요로하는 製品, 보통 중간溜分을 가져가고 나머지 製品은 現物市場에 내보낸다. 79~80년에 걸쳐 싱가포르에서 위탁가공한 업체는 다음과 같다.

페르타미나(日産 約18만배럴) : 소량의 휘발유와 함께 중간溜分을 인도네시아로 輸入하고 나프타와 저유황연료유는 韓國과 같은 在來市場에 輸出하거나 現物市場에서 販賣한다.

방글라데시·피트롤리엄(日産 1만5천배럴) : 中間溜分을 輸入하고 나프타와 重質燃料油는 現物市場에 판다.

걸프오일(日産 1만배럴) : 극동지역의 在來市場에 石油製品을 出荷하며 一部는 現物市場에서 판다.

ADNOC(아부다비 國營석유회사, 日産 2만배럴)

: 輕質油는 국내 또는 現物市場에 내보내며 高硫黃燃料油는 海上給油用으로 다스섬으로 보낸다.

페트로나스(日産 3만5천배럴) : 公壳로 現物市場에서 販賣한다.

쿠오·인터내셔널(싱가포르에 본부를 둔 貿易商, 日産 2~3만배럴) : 중간溜分을 인도네시아와 印度에 보내며 나프타는 日本으로, 연료유는 泰國으로 보낸다.

Coastal States(現地加工) : 燃料油는 말레이지아로 보내고 그 일부는 原油와 交換된다. 기타제품은 現物市場에서 販賣된다.

싱가포르의 한 大精油業者의 推算에 의하면 지난해(80年) 싱가포르에서 위탁가공하여 벌어들인 收入은 대략 噸당 7\$에서 7.50\$(배럴당1\$)이었다.

日本の 現物市場 支配

現物市場에서 購入하는 극동계극중 日本이 最大의 工業國家로서 精製用과 備蓄用 原油는 물론 石油製品에 대한 수요도 많은 가장 중요한 국가이다.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보면 日本의 現물시장 參與 与否에 따라 現物市場價格이 좌우된다. 나프타와 重質燃料油는 石油化學工業과 發電用으로 日本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제품이다.

原油가 거의 생산되지 않는 日本은 原油現物市場에 크게 영향을 미쳐왔다. 이란革命이 일어나기 전에 日本은 세계의 第3者間 石油貿易量의 約40%를 차지했다. 메이저가 日本에 第3者の 原油供給을 단절한 이란革命이후 79年初 日本 精製能力의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던 民族系 精油会社들은 G-G거래를 모색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란産 原油의 경우 契約條件은 價格이 높아 아주 不利했으며 더우기 原油이외에 重質燃料油를 多量 購入해야했다. 그후 계속된 原油供給과잉현상으로 80年 1/4분기에 極東의 燃料油現物市場은 와해되었다. 무역소식통에 의하면 79年8月 日本의 現物市場 導入原油量은 總原油導入量의 約3.9%였으며 同年9月 8.2%로 늘었다고 한다.

80년에는 전반적으로 原油現物市場에서 日本의 活動은 通産省의 엄격한 購買指針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활발하였다. 이란-이라크 전쟁이후 원유구매 제약조건이 더욱 늘어났는데 그 이유중의 하나는 日本이 상당량을 비축하였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年末 中東産 原油의 現物價格 강세는 주로 日本이 저유시설을 채우고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및 아부다비를 포함한 一部 産油國으로부터 原油購入減少量을 보충하기 위한 需要에 기인된 것이었다.

其他国家的 去來

台灣과 홍콩은 高度의 工業國이면서 自國內에서 原油가 생산되지 않아 輸入原油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에서 日本과 흡사하다. 79年 台灣은 總에너지需要量의 약 80%를 輸入原油에 의존하고 있었으며, 이 중의 90% 이상을 中東產油國에서 輸入했다.

台灣은 現在 원유부족분을 메꾸기 위해 대부분 現物去來條件으로 外國會社의 代行處理를 하고 있다. 台灣에서 싱가포르 現物市場으로 流入되는 대부분의 石油製品은 카오슝에 위치하고 있는 台灣石油公社의 精油工場에서 精製된 것이다. 輕質油, 特히 제트油는 原油供給者에게 다시 보내고 燃料油는 台灣의 需要量을 충족시키기 위해 現物市場購入分과 함께 內需에 充당되고 있다. 台灣은 石油化學用 나프타 역시 現物市場에서 購入하고 있다.

홍콩은 自体所有의 精油工場이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石油製品導入에 의존하고 있으며, 中共의 主要고객이다. 홍콩이 現物市場에서 주로 導入하는 油種은 重質燃料油이며 이는 産業用, 최근에는 戰略的 備蓄用으로 購入하고 있다.

泰國은 中東產 原油供給에 주로 의지하고 있는 精油工場이 3개 있으며 79年 이란革命이후 현재까지 원유부족 현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및 中共과의 직접거래로 방향을 틀리고 있다. 中東에서 紛爭이 시작되자 泰國은 燃料油부족이 심각했는데 그 理由중의 하나는 이란產原油 導入計劃때문이었다. 새로운 供給源을 확보하지 못하는 한 이로 인해 泰國은 단기적으로 볼때 現物市場에 더욱 의존하게 될 것 같다. 泰國이 高價로 現物購入했다는 사실은 開戰 約3주일후에 이미 보도되었다. 泰國은 現物市場에서 燃料油이외에 中間溜分을 購入하고 있다.

一般的으로 泰國, 印度및 인도네시아는 싱가포르 石油製品 現物市場의 주요 고객이다. 인도네시아는 國內需要가 增加함에 따라 燈油和 輕油를 사오고 있으며 製品을 저장할 수 있는 海上施設을 갖고 있다. 印度의 輕油 需要는 소련으로부터의 購入量으로 어느정도 充當되어 왔으며 長期協定下에 導入되고 있다. 80年10月 소련產原油와 石油製品 5백만톤을 印度가 요청함에 따라 兩國間에 石油와 곡물교환 협정이 체결되었다. 兩國사이에는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거래가 있었으나 그 규모는 보잘 것 없었다.

印度의 原油供給은 中東戰爭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어 이란과 이라크로부터의 石油供給이 中斷됨으로써 原油와 製品의 總所要量의 80%를 잃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아쌈 精油工場의 노동자파업으로 石油供給은 한층 더 어려워졌다. 印度는 現物市場에서 燈油와 燃料油를

購買하는 것과는 별도로 中東戰이후 現物市場의 原油를 購入하고 있다. 孟加拉देश, 파키스탄 및 스리랑카는 80年 이란·이라크 이외의 國家로부터 原油를 購入하고 있었기 때문에 原油供給面에서 印度보다는 나은 상태에 있었다. 孟加拉देश는 사우디로부터 대부분의 原油를 導入하고 아부다비에서 少量 購入하고 있다.

中共의 参与

中共은 石油産業이 發達하고 西方과의 關係改善이 이루어짐에 따라 싱가포르現物市場에 조금씩 그 모습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中共에서 石油製品을 처음으로 購買한 貿易會社는 뉴욕에 본사를 둔 쉘石油社로 79年初 約 30만톤의 휘발유와 輕油를 中共에서 輸入했다. 中共產原油를 購入한 最初의 貿易業者도 역시 美國係會社인 Coastal States社이며 지금도 中共과 原油 및 石油製品去來를 계속하고 있다.

中共에서 現物市場으로 빠져나가는 主要油種은 휘발유로써 79年末 이후 계속 수출되고 있다. 과거의 中共 휘발유는 加鉛하지않아서 옥탄價가 80정도로 낮아 販賣가 어려웠다. 대부분의 揮發油가 美國으로 輸出되어 그곳에서 品質을 높였다. 그러나 初期以後 品質이 向上되어 現在에는 加鉛하여 옥탄價 93인 揮發油가 生産된다. 中共의 貿易量이 늘어남에 따라 價格體系에서도 中共의 攻擊의인 태도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소위 友情價格을 脫皮하여 점차 現物市場價格쪽으로 움직여왔다.

泰國은 과거에 中共產原油를 싼값에 購入한것 같으나 石油製品에 대해서는 반드시 싼것은 아니었다. 中共과 泰國間에 체결된 계약서상의 輕油가격은, 80%는 싱가포르現物價格으로 나머지 20%는 싱가포르告示價格에 근거를 두고 책정되었다. 日本 貿易業者와 체결한 다른 去來에서 輕油의 輸出價는 船積1個月前 싱가포르 現物價格수준을 참고하여 결정하기로 되어 있었다.

홍콩은 中共의 大市場으로서 揮發油같은 石油製品價格에 대해 몇몇 나라와 함께 特혜를 받고 있다. 홍콩으로 輸出되는 中共의 石油製品價格이 船積時마다 變動하지만, 대부분의 輸入國은 告示價와 現物價內의 값을 支拂하고 있다. 中共도 石油製品과 原油의 국내需要增加로 特種제품에 대한 輸出이 中止될 전망이다. 그러나 中共內에서 輕油와 中間石油化學製品의 需要가 앞으로 당분간 적을 것으로 보여 이런 제품들은 계속 現물시장에 供給하게 될 것이다.

不足한 저장시설

싱가포르 現물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要素中의 하나가 이 지역에 독립

된 貯藏施設이 不足하다는 점이다. 貿易業者들이 소유하고있는 처치곤란한 제품을 너무도 쉽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現狀維持에 신경을 쓰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단기간 販賣를 해야하는데 신경을 쓰는 일이 고작이다. 그러나 뒷거래도 불가피하게 자주 일어나고있다.

또한 장거리지역과의 去來도 빈번하며 특히 重質燃料油에 대해서는 운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小量을 취급하기를 꺼려한다. 輸送費를 절감하기 위해 小量取扱時에는 완전히 채울 필요가 있으나 貯藏탱크에서 製品을 빼낼 수 없는 곳에서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

최근 싱가포르지역에 있는 獨立貯藏施設은 精油業者만이 所有하고 있으며, 스리랑카에 위치한 旧海軍基地에 貯藏施設이 있다. 이 施設은 펌프施設이 불량하고 投錨地가 좁아(배의 全長이 168m, 홀수10미터) 주로 Coastal States만이 이용할 뿐 이용빈도가 아주 적었다. 그러나 실제로 약 1백만톤을 貯藏할 수 있으며, 改良하면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리자코·인터내셔널이 이곳에 精油工場 建設과 관련하여 港口를 現代化 하겠다는 案을 내놓았다.

貿易業者에게 다소 밀리기는 하였지만, 유럽의 貯藏會社가 極동地域의 시장잠재력을 認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80년10월 유럽의 貯藏會社인 Phs Van Ommeren이 싱가포르당국과 오랜 협상끝에 極동지역에 獨立貯藏施設을 건설하기로한 최초의 계약서에 서명하였다. 이런 投機事業은 싱가포르 주변의 貿易業界에서 환영받지만 싱가포르는 國土가 협소하여 부지가 귀한 편이다. 이런 이유로 저장시설을 갖추는데 오랜시간이 걸린다. 이 저유소(Van Ommeren Terminal 싱가포르회사)新設에 參加한 業体와 그 持分率は 다음과 같다.

▲ Phs Van Ommeren International 51%, ▲ 싱가포르 항만청 26%, ▲ Intraco會社10%, ▲ Temasek 持株會社 13%

Temasek의 持分은 싱가포르 開發銀行에 양도될 예정이다. 이 貯油所는 82년 후반에 稼動할 예정이며 第1단계의 성공여부에 따라 第2단계 建設에 착수할 계획이다. 제1단계에서 貯油所는 2백30만배럴의 저장능력과 水深이 약16m로 적재톤수 8만톤까지의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를 갖게 되며 第2단계에서는 저장능력을 약4백7십만배럴로 擴張하도록 되어 있다.

第1段階에서는 石油製品, 石油化學製品과 植物性기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며 그후 기타 化工약품, LPG와 化學用 가스까지 저장토록 확장할 계획이다. 저장능력의 약30~40%가 重質燃料油이고 그 나머지가 輕質油가 될 것이다. 저장탱크가 총18기로 저장능력이 약2만2천배럴에서 약35만배럴까지 다양하며 탱크형태는 輕質油 저장시설이 천정이동식이고, 重質油는 천정 고정식이다.

저유소는 Pualu Sebarok에 건설될 예정이다. 현재로

서 極동 지역의 獨立 저장시설이 부족하나 해상 저장시설에는 많은양의 石油가 있으며, 그 대부분은 日本소유이다. 해상 비축량을 늘리는데 日本과 인도네시아는 現物市場을 이용해왔다. Howard Houlder社가 밝힌 80년 11月3日 현재 極동지역 해상비축시설을 보면, 日本이 선박 21척으로 적재톤수 4,660,794톤, 인도네시아가 9척으로 1,475,789톤, 필리핀이 2척으로 332,575톤, 그리고 泰國이 1척으로 108,183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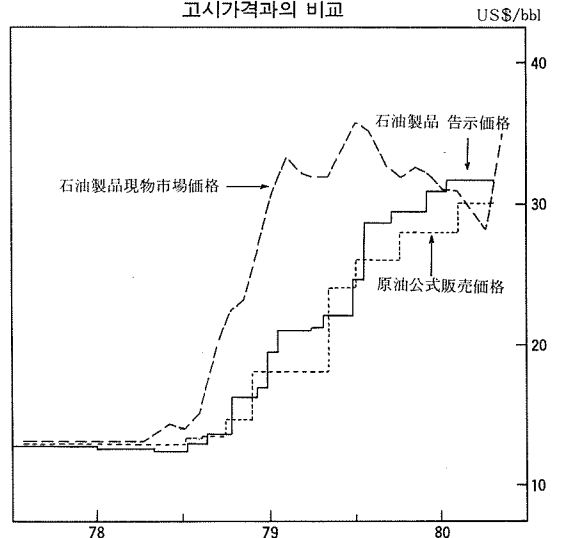
現物市場의 價格變動

(표-1)은 78년부터 80년1/4분기까지 現物價格과 告示價格과의 관계를 보여준다. 78년여름 極동지역에 위치한 정유공장은 유럽에 있는 정유공장이 겪고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로 고민하였다. 重質연료유에 대한 供給過剩과 需要減少가 있었으며 油槽船市場의 低調로 需要가 더욱 줄었다. 日本의 경기침체로 極동지역에 있는 主要石油消費國의 需要도 줄어들었다. 重質燃料油는 싱가포르精油工場의 稼動率이 50%이던 76년 경기부진때 最低水準을 기록하였다. 한편 輕質油價格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으며 日本石油化學工業의 지속적인 需要로 나프타 가격이 가장 안정세를 나타냈다.

이란과 이라크는 과거 極동지역에 石油製品을 대량 공급하였으나 自國內의 需要를 충족시키기위해 石油製品輸出을 中止함으로써 싱가포르現物市場의 價格安定에 기여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泰國및 인도의 購買者들은 싱가포르 現物市場에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 멀리까지 나가서 石油製品을 輸入해야만 했다.

79년1월 싱가포르 現物市場價格도 다른곳과 마찬가지로 폭등하였다. 中東에서 供給量을 줄이자 유럽에서 보다 싱가포르 現물시장에서 그 충격을 더 빨리 받게 되

(표 1) 싱가포르 석유제품의 현물시장가격과 고시가격과의 비교



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中東으로부터 供給量에 더욱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79年 이란革命以前의 경우 극동지역은 이란産 原油輸出量의 約25%, 제품수출량의 約78%를 차지하였으며 제품수출의 경우 海上給油用 燃料油를 제외하고 77년에 하루 約12만배럴을 輸入하였다. 輕質油는 계속 강세를 보였고 메이저가 그들 자체의 정유공장에서 생산되는 석유제품의 출하를 제한함으로써 供給量은 더욱 줄었다. 불안이 고조되자 燃料油價格조차 포함세가 되었다.

日本은 現物市場에서 비싼 원유뿐만 아니라 燃料油, 나프타를 구입하였으며 그중의 일부는 日本의 備蓄에 必要한 物量이었다. 79年 10月이 되자 日本의 石油製品在庫量이 岌岌해지며 日本은 싱가포르 現物市場에서 손을 떼었다. 이란은 日本이 原油供給에 대해 不安을 느끼자 이점을 재빨리 이용하여 自國의 重質燃料油過剩 현상을 해소하였다. 重質燃料油의 供給過剩으로 石油製品의 國內需給上 石油製品을 계속供給하여야 할 이란정유공장은 稼動率을 낮추었다. 따라서 79年末 이란은 메이저 및 日本과 맺은 長期원유공급계약을 燃料油販賣와 연결시켜 연료유는 톤당 1백60달러의 비싼가격으로 販賣했다. 日本은 이란과 체결한 原油供給계약서상의 30%를 추가로 구입하는 조건으로 79年末까지 重質燃料油 50만톤을 輸入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80年 1/4분기말에 日本은 燃料油가 넘쳤다. 많은 現物去來에서 손해를 보았지만, 日本은 過剩在庫를 처분하는데 놀라운 정도로 성공하였다. 당당시 石油業界는 이란이 계약서 원본에 규정된 燃料油物量을 인도할 수 있을지를 의심하였다.

79年 11月 이란의 美대사관원 인질사건이 일어나자 싱가포르 現物市場價格이 또한차례 引上되었다. 유럽무역업자들이 西方에 輸出될 값싼 석유제품을 찾아 극동아시아로 몰려오자 싱가포르 現物市場 價格은 거의 유럽 現물시장 가격인상 수준으로 오르게 되었다. 他製品은 극동지역으로 보내고 유럽은 나프타와 연료유를 가져감으로써 兩現物市場사이에 石油製品移動이 시작되었다. 79年 전반적으로 흘러 넘치는 燃料油를 제외하고 싱가포르 現물시장가격은 告示價를 웃돌았으나 市場이 점차 약화되던 80年 상반기에는 상황이 바뀌었다. 이란내의 美國人 인질 구출작전이 실패한 직후인 5월의 價格은 잠시 급등하였으나 전반적으로 가격은 다시 以前水準으로 내렸다.

全世界 石油消費國들은 79年末과 80年 1/4분기까지가 능한대로 비축량을 늘렸으며, 그후 제품이 貯藏탱크에서 빠져 나가면 곧 채우는 경향을 보였다. 79年사태와 비교하면 싱가포르 現물시장은 조용한 편이었다. 79年中 石油製品을 大量 購買하는 현상에 비해 80年의 경우 싱가포르시장의 거래는 전반적으로 현저히 저조하였는

데 이런 현상은 가격에 관한 구매자의 신중환 태도와 특히 日本의 경우 많은 물량비축을 반영한 것이었다. 일년내내 나프타가격은 日本의 산발적인 수요와 西方으로의 輸出可能性이 增大함에 따라 가격변화가 심하지 않았다.

80年初 市場이 지나치게 약세로 돌아선 후 연료유는 韓國, 台灣, 泰國으로 계속 수출되었으며 휘발유는 종래의 시장으로, 특히 인도네시아와 인도로 수출되었다. 최근에는 이란·이라크 전쟁으로 싱가포르市場의 現物價格은 급속히 오름세를 보였으며, 연료유가격은 싱가포르시장에서 9月末 톤당 約1백76달러에서 10月末에는 2백40달러로 暴騰했으나 그후 하락하였다. 연료유는 특별히 타격이 심한데 그 이유는 극동지역에서 사용되는 燃料油의 대부분이 이란의 아바단 정유공장에서 들어오기 때문이었다. *

〈싱가포르의 現物去來商 住所錄〉

- Kuo International(Pte) Ltd** - 20th Floor, Marina House, Shenton Way, Singapore 0207.
Tel: 2224677, Tlx: RS 22046.
- Coastal Petroleum(Far East) Pte. Ltd** - 3805, O. C. B. C. Centre, Singapore 0104.
Tel: 2235300, Tlx: RS 33164.
- Leeward Petroleum Company Pte. Ltd** - Suite 1204, O. C. B. C. Centre, Chulia Street, Singapore, 0104.
Tel: 2238322, Tlx: RS 33750.
- Phibro(Philipp Brothers)** - Cathay Building, Suite 406, Mount Sophia, Singapore 0922.
Tel: 3366144. Tlx: RS 24374.
- Bulkoil(Area Representative for Far East and Pacific Regions)** - Suite 913, Supreme House, Penang Road, Singapore 0923.
Tel: 2940612, Tlx: RS 26147.
- Interpetrol(Pte) Ltd** - Suite 2306 O. C. B. C. Centre, Singapore 0104.
Tel: 223291, Tlx: 8733867.
- Tradax International Pte. Ltd** - 20th floor, Shaw Centre, Scott's Road, Singapore 9.
Tel: 7348171, Tlx: 23368.
- Vitol** - Suite 1106, Ocean Building, Collyer Quay, Singapore 0104.
Tel: 914618/29, Tlx: 33473.
- Stinnes Pte. Ltd** - 3708 O. C. B. C. Building, Chulia Street, Singapore 0104
Tel: 2238856/57, Tlx: 34547.
- Scanoil Pte. Ltd** - Room 1006-1007, 10th floor, Straits Trading Building, 9 Battery Road, Singapore 0104.
Tel: 222 - 97474